

국회의원 이념성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대 국회의원의 개인적 배경을 중심으로

김석우 | 서울시립대학교

전용주 | 동의대학교

이 연구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배경 혹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연구이다.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과 정치적 선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향후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어떤 투표행위를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찬성하고 어떤 정책을 반대할 것인가, 또한 어떤 사안에 관하여 어떤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인가 등에 국회의원 개인들의 이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제19대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배경과 이념 성향간의 관계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은 이들이 속한 정당과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 한국 정당이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지역정당이었다는 점과는 다른 현상이며, 한국 정당이 이념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역과 재산 변수가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 외에 국회의원의 연령, 지역구의 도시·농촌 여부도 그들의 이념 성향과 일정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이념, 사회경제적 배경, 정당

I. 머리말

이념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이다. 즉 이념은 개인 혹은 집단이 추구하는 근본적 가치 중 하나이다. 이념은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관한 믿음이다. 이념은 개인 혹은 집단의 행동을 구성한다. 이념은 개인 혹은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게 만든다. 따라서 개인 혹은 집단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념은 국회의원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어떤 투표행위를 할 것인가, 어떤 정책을 찬성하고 어떤 정책을 반대할 것인가, 어떤 사안에 관하여 어떤 내용을 가진 의안을 발의할 것인가 등에 국회의원 개인들의 이념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외교, 국방, 경제, 사회, 정치와 관련된 많은 사안들에서 국회의원들의 선호를 구성하는데 이념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떤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가는 한국정치, 혹은 더 크게는 한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국회의원들의 투표 행위는 대략 세 가지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는 소속정당이다. 정당은 “정치적인 주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념을 실행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즉, 비슷한 이념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화되어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특정 정당에 속한 사람들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강구한다. 중요한 사안에 관한 투표행위에서 같은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다른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과의 경쟁 속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의 투표 행위가 비슷하다. 즉, 진보정당 혹은 보수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정당의 이미지에 걸맞는 투표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위에서 소속정당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둘째는 지역구 이익이다. 국회의원들의 최대 목표와 이익은 재선이다. 즉,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국회의원직에 계속 있게 할 수 있는 지역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형태의 의원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의 투표행위도 자신들이 속한 지역구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서는 지역구 이익을 반영하는 형태의 투표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농어촌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유무역협정 협상 혹은 기타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 등에서 개방을 반대하고, 개방 협정에 반대표를 던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셋째는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다. 국회의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적 성향이 투표행태에 영향을 끼친다.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성향은 한국 사회와 경제, 그리고 정치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개인적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념 성향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정부와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 순위로 두어야 하는가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국회의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념 성향은 이들의 투표행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한 변수인 것이다.

소속 정당, 지역구 이익, 그리고 이념 성향 중 어떤 요인이 국회의원들의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인가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여야가 극한의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 국내정치 상황에서 많은 국회 내 투표행위는 정당 간 대립 혹은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어떤 사안은 정당 간 합의에 의해서 다소 쉽게 결정되고, 또 다른 사안들은 정당 간 극한적 대립 속에서 소속정당 내 모든 국회의원들이 동일한 투표행위를 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의 소속정당이 투표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역구 이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경제개발과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투표행위가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개발, 대규모 국책사업, 혹은 예산 배정과 관련된 사안들과 관련된 투표에서는 국회의원 각자가 속한 지역의 이익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념 성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사안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는 대북한 정책에 관한 사안이 가장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 근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바람직한 통일상에 관한 인식에 따라서 이들의 대북한 정책 성향과 이와 관련된 투표행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의원들의 이념 성향이 투표행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형제도, 동성애 결혼, 그리고 낙태 등에 관한 문제는 의원들의 이념적 성향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들의 투표행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변수인 이념 성향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중요하다. 이념은 각 국회의원들에게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인적 배경과 경험의 조합이 이들의 이념 성향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정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보수 혹은 진보적 이념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이 이들의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독립 변수로 작동한다면, 이러한 이념 성향은 국회의원들의 어떤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국회의원들이 이념적 성향을 종속 변수로 취급하는 연구가 매우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한국정치학에서 거의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앙집권적 형태를 보였던 한국 정당체제에서 국회의원들의 소속정당이 이들의 투표행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을 파악하고,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

한 연구가 부진했던 것이다. 둘째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념 성향을 조사해서 하나의 일관된 지표로 나타냈던 연구와 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북한 정책, 경제 민주화 논의, 사형제도와 간통제 폐지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사안들의 부각 등으로 인해서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이 투표행위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요인들로 부각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 결정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한국정당학회와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19대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이념 성향 결과에 따라서 하나의 지표를 확보한 것도 이러한 연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즉, 하나의 중요한 변수에 관한 객관적 측정을 통한 지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과거에 가능하지 않았던 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 배경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즉, 한국 19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배경이 이들로 하여금 어떤 이념 성향을 보이게 하고 있는가에 관한 인과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념 성향을 종속변수로 두고, 이것에 영향을 끼친 국회의원 각자의 개인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어떤 개인적 변수들이 이념 성향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다음 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이념 성향에 끼치는 요인들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모델을 설정하고, 변수들을 설명하고, 회귀분석을 시도하여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의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연구의 함의와 의의를 언급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할 것이다.

II. 개인적 배경과 이념 성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나아가 그 정당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이념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까? 특정 개인의 이념 혹은 정치적 선호 형성은 그의 개인적 배경 혹은 사회 계층적 위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측면이 크며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매우 역사가 깊고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립셋(Lipset 1960)은 개인적 배경 혹은 사회경제적 특징이 그의 이념이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한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한 대표적 초기 학자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정치적 인간』(*Political Man*)에서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기원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가치는 중산층과, 특히 교육 정도가 높은 개인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회에서 지속될 수 있으며, 반면 전체주의에 대한 비합리적(irrational) 지지는 경제적으로 소외되거나 취약한 집단이나 노동자, 혹은 소규모 자영업자들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 즉 한 개인의 계층적 위치(class location)가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형성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립셋보다 먼저 이 주제에 실증적으로 접근한 대표적 예는 이른바 컬럼비아 학파가 시도했던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sociological approach)이다. 이들에 의하면 개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 내에서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과정을 거쳐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즉 동일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결과 유사한 정치적 신념을 갖게 되고, 반대로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은 상이한 정치적 신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Lazarsfeld et al. 1948; Berelson et al. 1954; Conover 1988; Kohler 2006; Zuckerman 2006).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선호도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요인은 그 개인이 어떠한 집단에 속해 있는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속 집단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socioeconomic background)인 것이다. 즉 대표적 사회경제적 지표인 경제적 지위나 재산, 연령, 성, 교육정도, 종교, 인종 등으로 구분할 때 동일한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유사한 정치적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벨레슨과 동료들(Berelson et al. 1954)은 이러한 과정을 ‘정치적 선택의 사회적 이전’(social transmission of political choices)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개념은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첫째, ‘차별화’(differentiation) 과정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을 공유한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은 정치적 쟁점에 대해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반면,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들과는 대립적이거나 갈등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둘째, ‘이전’(transmission) 과정으로서, 유사한 특징을 갖는 집단에 속한 개인들의 정치적 선호는 가족, 친구, 동료와 같은 1차 집단(primary group)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전된다. 셋째, ‘접촉’(contact) 과정으로서 타집단 소속 구성원들보다는 동일한 소속 집단의 구성원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하면서 유사한 정치적 신념과 태도를 강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동일한 사회 집단에 속한 개인들은 집단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유사한 정치적 선호를 형성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컬럼비아 학파 이후 학자들도 이 같은 논의가 이론적, 경험적 타당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단 정체성’(group identity), 혹은 ‘연계된 운명’(linked fate)과

같은 개념을 발전시킨 학자들은 각 개인들이 사회적 이동의 유동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릴 적 형성했던 정치적 성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어린 시기 사회계층적 위치에 의해 소속되어 있던 집단 내에서 습득한 신념과 태도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그 개인이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해 갖는 입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Connover 1988).

따라서 특정 개인이 왜 특정 이념과 정치적 신념을 선호하는지를 상당 부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속한 사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느 사회집단에 소속되는지 여부는 그의 개인적 배경을 구성하는 몇 가지 주요한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의 정치적 가치와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개인의 사회계층적 변수 혹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그의 정치적 신념이나 태도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리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 하면 특정 국가나 특정 사회의 상황적인 변수 혹은 맥락적 변수에 의해 그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 개인의 이념이나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소속 집단의 영향력은 해당 사회의 역사적 발전 단계, 사회 구조, 혹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Butler and Stokes 1971; Andersen and Heath 2002).

그렇다면 개인의 어떠한 사회경제적 배경이 의미있는 것일까? 이 글의 연구 주제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을 결정하는 개인적 배경을 찾아내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한국적 상황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 사회경제적 지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개인의 '경제적 지위' 혹은 '재산' 정도를 들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어떤 경제적 계층 혹은 계급(class)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밝혀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경제적 계층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은 유사한 이념을, 그리고 다른 경제적 계층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과는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Lipset 1960; Lipset and Rokkan 1967). 그러나 탈물질주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러한 경제적 계층이라는 지표가 갖는 의미가 감소하고 있다는 논쟁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다(Inglehart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들은 개인의 소득과 그에 따라 소속되는 경제적 계층 집단은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Bartel 2008; Gelman 2008; McCarty et al. 2006). 예를 들어 시기와 쟁점, 그리고 사회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경제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할수록, 즉 개인의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쟁점에 대해 보수적 관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에 속

할수록, 즉 소득이 낮을수록 진보적 관점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Gelman 2008).

둘째, ‘교육’ 혹은 ‘학력’ 수준이다. 사회가 분화하고 발전하면서 경제적 쟁점보다는 문화적, 사회적 쟁점이 부각되고 이를 둘러싼 이념적 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면서 한 개인의 교육 수준이 정치적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수준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자유주의적 혹은 보수주의적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경험적 연구도 있다(Gelman 2008; Van Der Waal et al. 2007).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시하며, 정치적 관용 수준 또한 높다는 주장도 있다(Lipset 1960).

셋째, ‘연령’ 지표를 들 수 있다. 연령은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유권자 투표행태나 정치적 이념을 형성하는 주요한 변수로 등장했다(강원택 2003; 김욱 2006; 어수영 2006; 정구종 2006; 정진민 2003; 최준영·조진만 2005). 연령의 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연령 효과’(aging effect)로서 개인의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 이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직장과 같이 사회적 네트워크로 편입되고 기존 질서에 안주하게 되며, 따라서 연령이 낮은 경우보다 현상유지를 선호하면서 보수적인 이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세대효과’(generational effect)로서 같은 세대가 동일한 정치적 사건을 겪으면서 유사한 정치적 선호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례를 대상으로 한 대다수 연구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이념을,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 이념 혹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김욱 2006; 조중빈 2003).

넷째, ‘지역’ 요인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 요인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에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그런데 다수 연구들은 지역 간에 이념 차이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지역주의와 이념 균열의 ‘중첩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 특히 영남과 호남 간에 사회경제적 불평등 발전이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이념적 갈등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호남 유권자들은 진보적 이념을, 영남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이념을 형성하게 하게 되었고, 이 같은 이념적 차별성 뿐만 아니라 개별 쟁점이나 정책에 대한 입장에서조차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진하 2006; 백준기 외 2003; 최영진 2001).

마지막으로 ‘성’(gender) 구분을 들 수 있다. 여성과 남성 간에 이념 차이가 있는지는 다소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 낮은 수준의 정

치적 참여나 관심 정도를 보여 왔다.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대체로 보수적 이념 성향을 보여 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최영진 2004). 그러나 최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진출도 활발해지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으며, 남성 중심의 기존 질서에 비판적인 견해를 갖게 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다만 ‘성’ 요인은 다소 복합적으로 앞서 논의한 개인의 교육 및 소득 수준, 그리고 지역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이념과 정치적 선호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 개인의 이념 성향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한 사회의 주요한 집단 간 갈등과 이념 대립 현상은 결국 ‘정당’에 의해 매개되어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당은 “정부 권력을 통제하는 데 관심을 가지며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견해를 가진 집단과 경쟁하는 한 사회의 능동적인 정치적 주체(political agent)들의 표현적 집단(articulate organization)이다. 이와 같이, 사회 세력과 이념을 공식적인 정부와 연계하며, 보다 큰 정치적 공동체 내에서 사회 세력과 이념을 정치적 행동과 결부시키는 위대한 중간 매개체(intermediary)이다”(Neumann 1956, 352). 즉 정당은 유사한 정책적·이념적 태도를 갖는 개인과 집단을 ‘동원’하게 되고 동원된 개인과 집단은 그 정당의 주요 구성원 혹은 지지연합이 된다고 할 수 있다(Lipset and Rokkan 1967). 바꾸어 말하면, 정당은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 특정한 조직을 기반으로 한 개인들의 협력체로서 ‘유사한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들’로 조직되고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 정당의 경우 같은 정당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거의 유사하며 주요한 사회경제적 지표로 구분한 소속 집단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Norris and Lovenduski 1993).

한국의 경우도 정당 조직과 구성원이 과거에는 소수 정치적 명망가의 정치적 동원에 의한 것이었으나, 최근 이념적 유사성을 갖는 정치엘리트와 당원들에 의해 구성되어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강원택 2008; 2012; 김영태 2009; 박명호 2004).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이념과 정치적 선호 형성에 영향을 준다면 동일 정당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유사할 것이라는 점이 추론 가능하다. 실제 한국의 경우도 동일 정당 소속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유사하며 타 정당 소속 구성원들의 그것과는 차별성을 보인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전용주 2011; 2012). 결국 한국의 정당들도 비교적 동질적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된 이념 정당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다음에서는 이 같은 이론적·경험적 논의를 근거로 제19대 국회의원의 개인적 배경과

이념 성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특히 몇 가지 주요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변수화하여 구성된 가설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전 시켜보도록 하겠다. 제19대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표에 관해서는 선거 전 본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던 개인 정보를 활용했다.

III. 경험적 분석: 국회의원 이념 성향 결정 요인

1. 가설 설정

위에서 논의한 개인의 이념 성향 형성에 관한 문헌 연구와 이 연구를 위한 제한된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보수적 성향의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이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보다 보수 이념 성향을 가질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당은 특정 사회의 집단이나 개인 간 이념적 갈등을 표현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이념과 정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화한 조직이라는 점은 앞서 밝힌 바 있다. 즉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한 개인들은 유사한 이념이나 정치적 선호를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개인들은 자신들의 선호를 반영하거나 유사한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은 타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과는 이념 성향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한국 국회에 진출해 있는 네 개의 정당에서 통합진보당이 가장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통합민주당이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보수진영에서는 새누리당이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선진통일당이 가장 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들보다 보수 이념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설 2. 여성 국회의원이 남성 국회의원보다 진보 이념 성향을 가질 것이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밝혔듯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표 중 '성' 구분은 다소 복합적 지표이며,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성'이 개인의 이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일반화된 결론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과거와 현재에 차별 대우를 받았던 여성들이 현재의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 싶어 하는 진보와 개혁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반면에 남성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과거의 전통과 제도 그리고 정책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설 3. 연령이 높은 국회의원일수록 보수 이념 성향을 가질 것이다.

이 가설은 한국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령 간 이념 격차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젊은층이 개혁, 진보적 이념 성향을 보이고 반면에 장년층과 노년층이 보수적 이념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의원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연령이 높은 국회의원이 연령이 낮은 국회의원들보다 보수 이념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가설 4.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일수록 보수 이념 성향을 가질 것이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존재했던 제도와 정책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개혁과 진보가 경제민주화 혹은 양극화 해소 등 부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줄이는 정책을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보수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려는 성향을 보이고, 그런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직업은 주로 기업가 혹은 유사한 고소득 직업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문제에 있어서 보수 이념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가설 5. 농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보다 보수 이념 성향을 가질 것이다.

이는 한국정치에서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던 이른바 '근대화 이론'에 근거한 가설이다. 박

찬욱(1990)에 의하면 “도시의 유권자들에 비해서 농촌의 유권자들은 권력자에 습관적으로 복종한다거나 정치에 대한 세련된 이해를 갖지 못하는 등 전통에 묶인 태도와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더 많다”(조기숙 1996, 103에서 재인용). 즉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보수 이념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전통과 공동체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농촌 사람들이 보수 이념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와 개혁을 더욱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또한 빠른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이념, 그리고 선호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속한 지역 주민들과 유사한 이념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농촌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들은 과거 혹은 현재에 농촌에서 생활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아닌 한 평범한 개인으로서의 이념 성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가설 6. 군복무를 경험한 국회의원이 군복무를 경험하지 않은 국회의원들보다 보수 이념 성향을 가질 것이다.

이 가설은 남성 국회의원들에게만 해당하는 가설이다. 군복무를 한 사람은 국가관과 대북 인식 등에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다른 성향을 보일 것이다. 군복무는 한 개인으로서의 비교적 청년기에 겪는 학습 과정으로 앞서 논의했던 일종의 ‘정치사회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개인은 더 확고한 안보 인식과 강경한 대북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보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경험한 국회의원들 역시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에 비해서 강한 안보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또한 강경한 대북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원 이념 성향 조사 문항 중 몇 개가 대북정책 혹은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항들임을 고려할 때, 이 가설의 포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 가설들과 관련된 변수 외에도 경험적 분석에는 몇 가지의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앞서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검토했던 학력과 지역 지표 그리고 정치 경력 변수이다. 학력과 정치 경력 유무 여부가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가는 명확하지 않다. 학력이 높은 국회의원들이 더 보수적일수도 있고, 더 진보적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경력도 마찬가지이다. 정치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경험 내용에 따라서 보수

적 혹은 진보적 이념 성향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2. 모델설정, 변수, 경험적 분석과 토론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 이념 성향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정하고, 이 요인들이 이념 성향과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독립변수로 채택된 개인적 배경 요인들이 종속변수인 이념 성향과 어떤 통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험적 분석을 위한 모델은 다음과 같다.

$$Y = a + \sum biXi + e$$

이 모델에서 Y는 종속변수인 19대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이다. 국회의원 이념 성향은 0에서 10까지로 측정하였다. 0은 가장 진보 성향을 나타내고 10은 가장 보수 성향을 나타낸다.¹⁾ Xi는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적 배경인 독립 변수들이다. 독립변수들은 위에서 논의한 가설들을 바탕으로 채택되었다. 독립변수들에는 소속정당, 성별, 연령, 재산, 도농, 학력, 병역, 정치인 경력, 소속 지역 등의 변수들이 포함되었다.²⁾ e는 이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제외변수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속정당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정당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값이 주어졌다. 통합진보당에 1, 민주통합당에 2, 새누리당에 3, 선진통일당에 4의 값이 주어졌다. 즉, 값이 높을수록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성별 변수는 국회의원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남성에게 0, 여성에게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연령 변수는 국회의원 개인의 실제 연령값이 주어졌다. 재산변수는 이분산(heteroscedasticity) 문제를 완화하기 위

1)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이념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15개 항목에 관한 질문을 만들었다. 이 항목들은 대북지원, 외교-안보정책, 국가보안법개정 문제, 개성공단 사업, 북한인권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경제성장과 복지예산, 비정규직 보호법, 대기업규제 문제, 부유세 도입, 인터넷 실명제 실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소수자,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것들이다(중앙일보 2012/07/23, 1) 참조. 더 자세한 내용은 강원택(2012) 참조.

2) 국회의원 개인적 변수에 관한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대 국회의원 관련 자료(<http://info.nec.go.kr/>)에서 수집하였다.

〈표 1〉 독립변수 설명과 측정

독립변수	설명	측정
소속정당	국회의원 소속 정당	통합진보당=1, 통합민주당=2, 새누리당=3, 선진통일당=4
성별	국회의원 성	남성=0, 여성=1
연령	국회의원 연령	실제 연령
재산	국회의원 재산 구간	없음=1, 5천만 미만=2, 1억 미만=3, 5억 미만=4, 10억 미만=5, 30억 미만=6, 30억 이상=7
도농	국회의원 지역구	도시=0, 농촌=1
학력	국회의원 학력	초졸 이하=1, 중졸 이하=2, 고졸 이하=3, 대학 재학=4, 대학 졸업=5, 대학원 이상=6
병역	남성 국회의원 군복무 여부	군복무 안 한 국회의원=0, 군복무 한 국회의원=1
정치 경력	국회의원 정치경력 여부	정치경력 무=0, 정치경력 유=1
영남	국회의원 소속 지역	비영남=0, 영남=1
호남	국회의원 소속 지역	비호남=0, 호남=1
충청	국회의원 소속 지역	비충청=0, 충청=1

하여 구간으로 정해졌다. 즉, 재산이 없다고 신고한 경우 1, 5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진 경우 2, 1억 미만의 재산을 가진 경우 3, 5억 미만의 재산을 가진 경우 4, 10억 미만의 재산을 가진 경우 5, 30억 미만의 재산을 가진 경우 6, 그리고 3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 7의 값을 부여하였다.

도농 변수에서는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도시로 분류된 경우 0의 값을, 그리고 농촌으로 분류된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였다. 학력 변수인 경우 초졸이하인 경우 1의 값을, 중졸이하인 경우 2의 값을, 고졸이하인 경우 3의 값을, 대학 재학인 경우 4의 값을, 대학 졸업인 경우 5의 값을 그리고 대학원 이상인 경우 6의 값을 부여하였다. 병역 변수는 남성 국회의원에게만 값이 주어졌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경우 0의 값이, 그리고 병역을 마친 경우 1의 값이 주어졌다. 정치인 경력 변수인 경우 정치경력이 없는 경우 0의 값이, 그리고 정치 경력이 있는 경우 1의 값이 주어졌다.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가 세 개 포함되었다. 영남 변수인 경우 비영남 국회의원들에게는 0의 값이, 영남 국회의원들에게는 1의 값이 부여되었다. 호남 변수인 경우 비호남 국회의원들에게는 0의 값이, 호남 국회의원들에게는 1의 값이 부여되었다. 충청 변수인 경우 비충청 국회의원들에게는 0의 값이, 충청 국회의원들에게는 1의

값이 부여되었다. 독립변수들에 대한 설명과 측정에 대해서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론은 다중 회귀분석이다. 이 통계적 방법은 종속변수가 0에서 10까지의 값을 가지는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이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다중 회귀분석은 몇 가지의 가정들이 충족되면 BLUE(best, linear, unbiased, efficient) 베타값을 찾아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정들은 독립변수들 간의 완전한 다중상관관계(multicollinearity)의 부재, 오류의 동분산(homoscedasticity),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직선관계(linear relationship), 특이 사례(outlier)의 부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루이스-벡(Lewis-Beck 1989)과 베리(Berry 1993) 연구에서 채택된 변수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소속정당과 소속 지역 변수들 간에는 상당히 높은 다중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중상관관계가 있더라도 베타값은 본 값을 갖는다. 다만 통계적 유의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따라서 두 변수군을 번갈아서 모델에 삽입하는 시도를 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재산변수의 이분산 위험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구간을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특이 사례(outlier)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회귀분석 결과와 토론

이 연구는 네 가지 다른 모델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모델은 소속정당 변수가 포함된 모델이고 다른 두 모델은 소속정당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델이다. 이렇게 모델을 구분한 이유는 소속정당 변수가 인과관계가 가장 명확한 변수이고, 또한 개인적 배경으로 포함될 수 있는 변수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³⁾ 또한 병역 변수는 남성 국회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두 모델은 병역 변수가 포함되고 성 변수가 빠진 모델이고, 다른 두 모델은 병역 변수가 포함되지 않고, 성 변수가 포함된 모델

3) 소속정당 변수와 독립변수인 이념 간에 동시관계(simultaneous relationship)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즉 보수 이념 성향을 가진 인사가 보수 정당에 가입하고, 진보 이념 성향을 가진 인사가 진보 정당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두 변수 간의 동시관계성의 존재가 회귀분석의 타당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델을 소속정당 변수가 포함된 모델과 소속정당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델로 분류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여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다면, 동시관계의 존재 여부가 회귀분석의 타당성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 다중 회귀분석 결과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계수 (t 값, 유의확률)	계수 (t 값, 유의확률)	계수 (t 값, 유의확률)	계수 (t 값, 유의확률)
상수	-1.112 (-0.752, 0.453)	-3.571*** (-3.598, 0.000)	-3.742*** (-3.809, 0.000)	-1.208 (-0.821, 0.413)
소속정당		2.621*** (14.507, 0.000)	2.622*** (15.136, 0.000)	
성별			0.264 (0.865, 0.388)	-0.283 (-0.610, 0.542)
연령	0.030 (1.558, 0.121)	0.011 (0.854, 0.394)	0.015 (1.163, 0.247)	0.042** (2.173, 0.031)
재산	0.307*** (2.783, 0.006)	0.128* (1.732, 0.085)	0.132* (1.832, 0.069)	0.304*** (2.821, 0.005)
도농	0.951*** (3.371, 0.001)	0.338* (1.770, 0.079)	0.345* (1.774, 0.078)	0.960*** (3.317, 0.001)
학력	0.333** (2.147, 0.033)	-0.014 (-0.137, 0.891)	-0.009 (-0.093, 0.926)	0.308** (2.028, 0.044)
병역	0.418 (1.293, 0.198)	0.091 (0.425, 0.672)		
정치 경력	-0.368 (-1.607, 0.110)	-0.151 (-0.990, 0.324)	-0.136 (-0.906, 0.366)	-0.405* (-1.787, 0.076)
영남	1.513*** (5.904, 0.000)	0.487*** (2.661, 0.009)	0.453** (2.471, 0.014)	1.502*** (5.796, 0.000)
호남	-1.724*** (-4.906, 0.000)	0.032 (0.119, 0.905)	0.006 (0.022, 0.982)	-1.649*** (-4.704, 0.000)
충청	0.460 (1.118, 0.265)	0.059 (0.218, 0.828)	0.045 (0.160, 0.873)	0.459 (1.087, 0.279)
사례수	168	167	178	179
F 값 (유의확률)	13.523*** (0.000)	48.022*** (0.000)	51.286*** (0.000)	13.999*** (0.000)
수정된 R 제곱	0.402	0.738	0.739	0.395
모델 설명	소속정당, 성별 변수 제외	성별 변수 제외	병역 변수 제외	소속정당, 병역 변수 제외

***99%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

**95%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

*90%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

이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는 다음 <표 2>에 나타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배경과 이념 성향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 다른 모델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모델은 소속정당과 성별 변수가 제외된 모델이고, 두 번째 모델은 성별 변수만 제외된 모델이다. 세 번째 모델은 병역 변수가 제외된 모델이고, 네 번째 모델은 소속정당과 병역 변수가 제외된 모델이다. 모든 모델에는 연령, 재산, 도농, 학력, 정치 경력, 영남, 호남, 충청 변수들이 포함되어졌다. 성별 변수와 병역 변수가 번갈아가면 포함된 이유는 병역 변수인 경우 여성 국회의원들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소속정당 변수가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즉,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수 이념 성향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진보 이념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⁴⁾ 소속정당 변수가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다른 변수들, 특히 소속지역 변수들(영남, 호남, 충청)과 상관관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두 모델에서는 이 변수를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둘째, 연령 변수는 소속 정당 변수를 제외한 네 번째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정당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연령이 국회의원 이념 성향 형성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이념 성향을,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 이념 성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재산 변수는 네 모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일수록 보수 이념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일수록 기존 제도와 이념, 그리고 정책을 지지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넷째, 도농 변수 역시 네 모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도농 변수는 도시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0의 값을 그리고 농촌 출신 의원들에게 1의 값을 부여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농촌

4) 소속정당 변수가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회의원 이념 성향은 개인적 배경보다는 소속정당에 의해서 압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하지만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속정당 변수들이 통제변수로 포함된 모델들에서도 다른 개인 변수들이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배경 변수들이 소속정당 변수에 내재화(embedded)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출신 국회의원들이 도시 출신 국회의원들보다 보수 이념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전통과 공동체 가치를 중요시하는 국회의원들이 보수 이념 성향을 갖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학력 변수는 두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국회의원일수록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속정당이 포함되지 않은 두 모델에서는 학력 변수와 이념 성향 변수는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여섯째, 정치 경력 변수는 한 모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경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이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보다 진보적 이념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이다.

일곱째로, 국회의원 소속 지역 변수 중 영남 변수는 네 모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보다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호남 변수는 소속정당을 제외한 두 모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호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보다 진보적 이념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충청 변수는 네 모델 모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충청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은 그들의 출신 지역과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국회의원의 성별과 병역 여부는 국회의원 이념 성향 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성별 변수는 두 모델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베타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병역 변수는 병역을 수행한 국회의원들이 보수적 이념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베타값 방향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다.

네 모델을 비교할 때, 소속정당 변수가 포함된 모델들이 수정된 R 제곱값이 훨씬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서 소속정당이 다른 변수들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속정당 변수와 소속지역 변수가 상당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IV. 맺음말

이 연구는 국회의원 이념 성향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개인적 배경에 관한 변수들을 찾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 연구가 시도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은 이들이 속한 정당과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한국 정당이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동원되고 결성된 지역정당이었던다는 점과는 다소 다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정당이 이른바 ‘재편성’(realignment)과정을 거치면서 이념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정당 간 이념 성향이 더욱 간극을 벌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념 정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영남, 호남 등 지역 변수가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행 연구들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특성 정당과 이념적 특성 정당이 한국정치에서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험적 분석의 또 다른 결과는 재산 변수가 이념 성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다. 즉,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보다 보수적 이념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 뜨거운 논쟁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재벌 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 등의 경제사회 이슈들인 점을 감안할 때 부자 국회의원들과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 간의 이념 논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국회 내 투표에서 대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배경 혹은 사회경제적 배경이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연구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는 특정한 이념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4년간 어떤 투표행위를 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즉 국회의원들의 이념 성향을 연구의 종속 변수가 아닌 독립 변수로 삼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치가 여야 간 극한적 대립으로 인하여 국회의원들의 개인적 투표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태적 정치 행태로부터 변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독립변수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특정 직업 경험이 이념 성향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한 특별한 가족사 등도 특정 이념 성향을 형성하게 할 수도 있다. 이 연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을 포함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국회의원 이념 성향에 관한 하나의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지표는 국회의원들에게 질문된 15개 항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들이 이념 성향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 질문인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이념 성향을 측정하는 변수의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대안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투고일 2012년 8월 30일

심사일 2012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21일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지역·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_____. 2008. “한국 정당의 당원 연구: 이념적 정체성과 당내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2집 2호, 109-128.
- _____.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성향과 정책 태도.” 한국정당학회 19대 총선평가 학술회의. 서울. 4월.
- 김영태. 2009. “당원의 이념적·정책적 태도와 정당경쟁구도.” 『한국정당학회보』 8권 1호, 197-224.
- 김욱. 2006. “16대 대선에서 세대, 이념, 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75-107. 서울: 도서출판 오름.
- 김진하. 2006. “정치의식의 지역차이: 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한국정당학회보』 5권 1호, 199-234.
- 박명호. 2004. “한국 정당정치의 이념적 특성과 변화 전망.” 『세계지역연구논총』 22권 2호, 419-443.
- 백준기·조정관·조성대. 2003. “이데올로기와 지역주의, 그리고 2002년 대통령 선거.” 『국가전략』 9권 4호, 139-168.
- 어수영. 2006. “세대와 투표양태.”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

- 의원선거』, 227-268.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전용주. 2011. “한국 정당 엘리트의 사회경제적 배경 비교 연구: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정당별 후보자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21권 3호, 329-349.
- _____. 2012. “제19대 국회의원의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8권 2호, 39-64.
- 정구중. 2006. “16대 대통령 선거분석: 정치변동에서 사회변혁으로.”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109-132.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정진민. 2003. “한국 사회의 이념성향과 정당체제의 재편성.” 『한국정당학회보』 2권 1호, 95-118.
-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한울아카데미.
- 조중빈. 2003. “16대 대통령 선거와 세대.”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서울. 2월.
- 중앙일보. 2012. “진보성향의원 19% -> 37% 민주당에선 보수성향 전멸.”(7월 23일),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검색일: 2012.08.10).
- 최영진. 2001. “제16대 총선과 한국 지역주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35집 1호, 149-165.
- _____. 2004. “성의 정치심리학: 한국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과 투표행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권 5호, 81-100.
- 최준영 · 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집 3호, 375-394.
- Anderson, Robert and Anthony Heath. 2002. “Class Matters The Persisting Effects of Contextual Social Class on Individual Voting Behaviour in Britain 1964-97.”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8. No.2, 125-138.
- Bartel, Larry. M. 2008.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elson, Bernard,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N.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rry, William D. 1993. *Understanding Regression Assumptions*. Sage University Paper.
- Butler, David and Donald Stokes. 1971. *Political Change in Britain*. Harmondsworth, Eng.: Penguin.
- Conover, Pamela. 1988. “The Role of Social Group in Political Thinking.”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8. No.1, 51-76.
- Gelman, Andrew. 2008. *Red States, Blue States, Rich States, Poor States: Why Americans Vote the Way They D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onald. 1990. "From Class-Based to Value-Based Politics." In P. Mair, ed. *The West European Party Syste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ohler, U. 2006. "Changing Class Locations and Partisanship in Germany." In Alan Zuckerman, ed. *The Social Logic of Politics: Personal Networks as Contexts for Political Behavior*, 117-131.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Lazarsfeld, Paul F., Bernard Berelson, and Hazel Gaudet. 1948.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wis-Beck, Michael S. 1989. *Applied Regression: An Introduction*. Sage University Paper.
- Lipset, Seymour Martin. 1960.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Co.
- Lipset, Seymour Martin and Stein Rokkan, eds.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The Free Press.
- McCarty, N., K. T. Poole, and H. Rosenthal. 2006. *Polarized America: The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ches*. Cambridge, MA: MIT Press.
- Neumann, Sigmund. 1956. *Modern Political Parties: Approaches to Comparative Politic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rris, Pippa and Joni Lovenduski. 1993. "If Only More Candidates Came Forward': Supply-Side Explanations of Candidate Selection in Britain."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 No.3, 373-408.
- Van Der Waal, J., P. Achterberg, and D. Houtman. 2007. "Class is Not Dead: It Has Been Buried Alive: Class Voting and Cultural Voting in Postwar Western Societies: 1956-1990." *Politics and Society* 35, 403-426.
- Zuckerman, A., ed. 2006. *The Social Logic of Politics: Personal Networks as Contexts for Political Behavior*.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Political Ideology of the Korean 19th National Assembly Members

Seokwoo Kim | City University of Seoul

Yongjoo Jeon | Dong-Eui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ical positions of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s at the individual level. Previous research tells us that individuals with different levels of income, age, and other personal backgrounds should be expected to have different political ideologies and policy preferences. This study finds strong effects of age, economic status and other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embers on their ideological preferences. This paper also finds that the political parties they belong to have an effect on the members' ideological positions as mediating factors. This might mean that the Korean political party system has been realigning along the line of political ideology.

Keywords: the 19th Korean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members, ideology, socio-economic background, political parties